

인도네시아, 기업환경개선 정책 패키지¹⁾ 발표

□ (현황) 2016년 4월 28일 인니 정부는 기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업환경개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해당 패키지는 기업 설립, 건설허가, 부동산 등기, 세금납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절차, 시간, 비용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함.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의 평가요소가 이번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에 크게 반영되었음.

표 1. 기업환경개선 정책패키지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창업	• 절차: 13개 → 7개 • 시간: 47일 → 10일 • 비용: 680만~780만 루피아 → 270만 루피아(60~68만 원→24만 원) • 필요한 허가: 5개 → 3개	전기시설 설치	• 절차: 5개 → 4개 • 시간: 80일 → 25일 • 비용 VA당 17.5 루피아 → VA당 15 루피아(1.5원 → 1.3원)
건축 인허가	• 절차: 17개 → 14개 • 시간: 210일 → 52일 • 비용: 8,600만 루피아 → 7,000만 루피아(754만 원 → 614만 원) • 허가: 4개 → 3개	국제무역	• 수출 및 수입상품 신고: 오프라인 → 온라인 • 수출 처리시간: 4.5일 → 3일
부동산 등기	• 절차: 5개 → 3개 • 시간: 25일 → 7일 • 비용: 부동산 가치의 10.8% → 부동산 가치의 8.3%	세금납부	• 절차: 직접 납부 → 온라인 납부

자료: 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

□ (배경) 이번 정책 발표는 동남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노력으로 판단됨.

1) 영문명은 12th Economic Policy Package로, 조코위 정부는 취임 이후 발표한 경제개혁조치에 순번을 매겨 호칭하고 있음.

KIEP 동향세미나

- 인니 정부는 2016년 4월 8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기업환경평가 순위 개선 목표를 설정함.
(2016년: 189개국 중 109위 → 2017년: 40위)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은 동남아 1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ASEAN-5²⁾ 국가 중 최하위 순위임.
- 또한 이번 정책 발표는 투자에 영향력 있는 외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뿐만 아니라, 2016년 S&P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도 투자적격 등급³⁾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시함.
- 2015년 인니 경제성장률이 4.8%로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존재함.

표 2. 2016년 동남아 기업환경평가 순위

동남아 내 순위	전세계 순위	국가명
1	1	싱가포르
2	18	말레이시아
3	49	태국
4	84	브루나이
5	90	베트남
6	103	필리핀
7	109	인도네시아
8	127	캄보디아
9	134	라오스
10	167	미얀마

주: 평가에 포함된 국가는 총 189개임.
자료: World Bank

표 3. 2016년 인도네시아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순위

분야	순위	분야	순위
창업 (starting a business)	173	소액투자자 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88
건축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7	세금납부 (paying taxes)	148
전기접근 (getting electricity)	46	법적분쟁해결 (enforcing contracts)	170
부동산 등기 (registering property)	131	국경 간 거래 (trading across borders)	105
신용관련 체계구축 (getting credit)	70	도산절차 (resolving insolvency)	77

주: 평가에 포함된 국가는 총 189개임.
자료: World Bank

2)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지칭함.

3) BBB- 등급 이상을 의미하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BB+등급임

□ (전망) 향후 기업환경개선 정책 패키지 실행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투자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음.

- 기업가 출신인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정책 패키지를 직접 발표했으며, 최근 수차례 공식석상에서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음.
-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정책은 공포 이후 실질적인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실제 기업환경개선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우리 기업 또한 인도네시아 진출 모색 및 현지 사업활동에 있어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 World Bank, Jakarta Post 등>

신민이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